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인프라 지원(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창업지원사업/인프라
- 소관부처/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촉진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초기창업자에게 공간, 경영·기술 등 제공으로 지속적인 성장 유도
-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입주기업 보육 지원,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시스템(BI-Net) 지원

□ 예산 및 재원 : 균특회계

〈표 1〉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집행률)			(%)
□ 창업보육센터 지원	12,425	-	12,424 (100.0)	11,890	△53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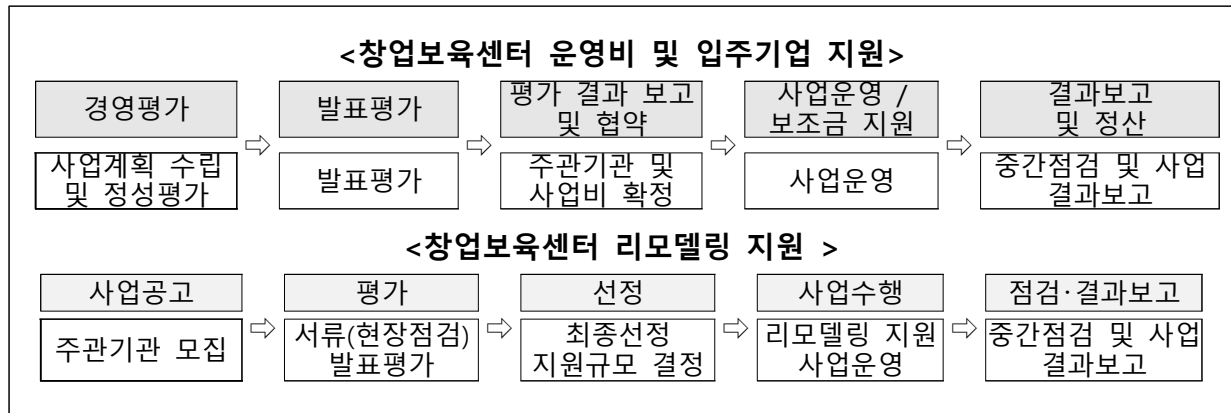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2, 제6조

□ 주요 지원대상

-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259개) 및 입주기업(6,293개)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전년대비 예산 감액으로 보조금 지원 단가 축소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성별) '20년 전체 참여자는 6,108명이며, 이 중 남성 참여자의 비중은 81.7%, 여성 참여자의 비중은 18.2%로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20년 기준 청년층(15~34세)의 참여 비중은 14.5%이며, 중년층(35~54세)은 70.1%로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표 2〉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35~54세) 35~39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5,220 (77.2)	7,431 (22.8)	9,051 (27.7)	19,759 (60.5)	5,732 (17.6)	3,320 (10.2)	447 (1.4)
인프라 전체	6,108 (100.0)	4,993 (81.7)	1,111 (18.2)	888 (14.5)	4,280 (70.1)	876 (14.3)	811 (13.3)	125 (2.0)
창업인프라지원	6,108 (100.0)	4,993 (81.7)	1,111 (18.2)	888 (14.5)	4,280 (70.1)	876 (14.3)	811 (13.3)	125 (2.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20년 사업체 723개소 중 고용보험 DB에 연계된 사업체는 4,329개소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70.9%로 나타남
- (산업별) '20년 기준 서비스업 2,634개소(43.1%)였으며, 제조업 1,603개소(26.2%), 건설업 62개소(1.0%) 순으로 나타남

〈표 3〉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사업체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4,359 (74.6)	13 (0.0)	9,137 (28.0)	205 (0.6)	14,880 (45.6)
인프라 전체	6,108 (100.0)	4,329 (70.9)	0 (0.0)	1,603 (26.2)	62 (1.0)	2,634 (43.1)
창업인프라지원	6,108 (100.0)	4,329 (70.9)	0 (0.0)	1,603 (26.2)	62 (1.0)	2,634 (43.1)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주2: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DB가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량지표별 결과

〈표 4〉 창업인프라지원 성과지표

(단위: %)

	지속고용 사업장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창업률
창업지원사업 전체	71.0	62.9	53.3	131.5	84.9
창업인프라 전체	72.5	70.4	11.6	296.2	-
창업인프라지원	72.5	70.4	11.6	296.2	-

주: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매칭률은 '19년 66.9%, '20년 70.4%임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5〉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창업지원 전체	4.33	4.34	4.19	4.42	4.20	3.97	4.17	4.20	4.45	4.34
인프라 전체	4.36	4.34	4.34	4.48	4.35	4.19	4.32	4.35	4.44	4.31
창업인프라지원	4.36	4.34	4.34	4.48	4.35	4.19	4.32	4.35	4.44	4.31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표 6〉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평가년도 만족도	4.36	4.34	4.34	4.48	4.35	4.19	4.32	4.35	4.44	4.31
전년도 만족도	4.24	4.28	4.24	4.42	4.28	4.06	4.24	4.21	4.26	4.17
전년 대비 변화	+0.12	+0.06	+0.10	+0.06	+0.07	+0.13	+0.08	+0.14	+0.18	+0.14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대표적인 창업인프라 사업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도 중요

- BI 지원사업의 역사가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6,100여개 창업 기업이 입주하여 있고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여전

* 고용인원(명) : ('17) 19,847 → ('18) 21,693 → ('19) 21,943 → ('20) 23,476

* 매출액(억원) : ('17) 21,109 → ('18) 22,064 → ('19) 21,497 → ('20) 22,230

□ 일자리 사업 성과

○ '17년 이래 지원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년말 기준 6,190개 기업의 보육을 통해 매출 2.2조 및 고용 2.3만 명 등 달성한 점이 인정됨

- 인프라 사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고용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우려

-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용창출 기업 비율도 높는데 고용 증감률만 떨어진다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정량지표인 고용창출 기업 비율은 70.4%로 창업지원사업 전체 평균(62.9%)보다 높고, 임금수준도 329.7로 전체 평균 142.0보다 두 배 이상 높으나, 고용증감률만 11.7%로 전체 평균(53.3%)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 운영의 적절성

-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매년 하반기에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BI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잘 잡혀 있음
 -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개별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따라 특성화된 강점(네트워킹이나 참여자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관리, 전문적인 멘토 풀 운영 등)을 가지고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남
- 다만, BI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실제 창업 초기 기업의 보육 성과와 일자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창업 생태계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간 임대 개념이 강해 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임대사업화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제도개선 노력

- 다양한 설명회, 현장 방문,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다른 사업연계를 통한 입주기업 지원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실제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성과 제고를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과와 연결되었는지 분명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